

저자            金台植  
(Authors)

출처            [신라사학보](#) , (6), 2006.4, 199-211 (13 pages)  
(Source)        [SILLASAHAKPO](#) , (6), 2006.4, 199-211 (13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154>

APA Style      金台植 (2006). 金庾信의 興武大王 추봉 시기. 신라사학보, (6), 199-211.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10/19 14:3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사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논 단】

# 金庾信의 興武大王 추봉 시기\*

金 台 植\*\*

- |                           |                                                |
|---------------------------|------------------------------------------------|
| I. 《東史綱目》                 | III. 《三國史節要》와 《東國通鑑》                           |
| II.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br>과리 | IV. ‘가야계 혈통 핸드캡론’과 그 비판<br>V. 興武大王 추봉과 新金氏의 창출 |

## I. 《東史綱目》

順菴 安鼎福(1712~1791) 撰 綱目體 史書인 《東史綱目》(전 20卷 20冊) 권 제5上 신라 興德王 10년 을묘년(唐 文宗 太和 9 : 835) 조에는 이 해 “봄 2월에 金均貞을 上大等으로 삼았다. (金祐徵이 면직하니 金明을 侍中으로 삼았다. 시중 우징은 그의 아버지 均정이 상대등이 되었으므로 사직을 청했다. 이에 대아찬 金명으로 대신했다. 金明은 元聖王의 증손이요 대아찬 (金)忠恭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바로 아래에 덧붙이고 있다.

\* 이 글은 2005년 3월29일 신라사학회 홈페이지(<http://cafe.daum.net/sillasa>) ‘정기발표회’란에 올라, 지금도 그대로 있다.

\*\* 연합뉴스 문화부 학술전문 기자

주요 논저 : 《풍납토성》, 김영사, 2000 ;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2001 외 다수

옛 재상 金庾信을 追封하여 興武大王이라 했다.

그러면서 안정복은 김유신에 대한 大王 추봉을 다음과 같은 先人の 史論을 끄집어내어 맹비난하고 있다.

崔氏는 이렇게 적었다. “신하의 직분은 충성함이 당연하다. 김유신이 신라에 공이 크기는 하나 周公이 큰 공훈이 있다 해서 成王이 嬴에 重祭(천자의 대제인 체제)를 지내게 하니 오히려 (이를) 잘못된 일이라 했거늘, 하물며 김유신을 추봉해 왕으로 삼아 君臣의 명분을 문란하게 하는가?”

周 왕조 창업 공신인 周公도 왕으로 봉하지 못했거늘, 아무리 신라에 대한 공이 크다 한들 周公에는 미칠 수 없는 일개 신하인 金庾信을 王으로 추봉한 일은 참람하기 짝이 없다는 뜻이다. 신하인 김유신이 왕이 됨으로써 임금과 신하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런 崔氏의 사론을 안정복이 동원한 까닭은 말할 나위 없이 그것이 안정복 그 자신의 생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즉 안정복은 최씨의 입을 빌려 흥덕왕의 김유신에 대한 興武大王 추봉을 비난하고 있는 셈이다.

《東史綱目》에 저록된 이 기록을 왜 주목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는 양대 기본 문헌으로 간주되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 보이는 관련 기록을 한편에서는 더욱 세밀하게 보충해 주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두 문헌에서 감지되는 흥무대왕 추봉 시기를 둘러싼 엄청난 괴리를 감쇄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흥무대왕 추봉 시기가 《동사강목》 이전 사서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는가? 또 이를 둘러싼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보

이지 않는 김유신에 대한 흥무대왕 추봉이 흥덕왕 재위 10년이라는 《동사강목》의 출전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 II.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괴리

흥무대왕 추봉과 관련되는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엄청나다. 두 문헌 모두 김유신을 신라왕조 하대에 대왕으로 추봉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그 추봉시기가 약 1세기 가량이나 격차가 진다.

먼저 《삼국사기》를 보면 권43 열전3 金庾信傳 下에서 그 후손을 언급하는 말미에 “興德大王이 공을 봉하여 興武大王에 책봉했다”라고 하고 있다. 《동사강목》의 관련 기록과 합치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흥무대왕 추봉시기를 흥덕왕대로 거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때 이뤄진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동사강목》이 흥무대왕 추봉시기와 관련해 《삼국사기》 외에 다른 모종의 기록을 참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다음은 《삼국유사》 紀異2 金庾信條에서는 “54代 景明王 때 공을 봉하여 興虎大王이라 했다. 능은 西山 毛只寺 북쪽 동으로 향해 뻗은 봉우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興虎大王은 실은 興武大王이니, 고려시대에 (적어도 그 저본이) 출현했음이 확실한 《삼국유사》가 고려 제2대 惠宗의 이름이 (王)武임을 避諱한 것에서 비롯된 표기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김유신이 사후 어느 시점에 신라왕조에 의해 大王으로 추봉됐으며, 추봉 시호가 興武라는 사실은 《삼국사기》와 《동사강목》 모두와 일치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그 추봉시기가 제54대

景明王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다. 이때 신라는 이미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태봉 및 태봉을 대신한 왕건의 고려에 밀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홍덕왕대를 거론하고 있는 《삼국사기》 및 《동사강목》과 비교할 때 《삼국유사》는 김유신의 홍무대왕 추봉시기가 무려 100년 가량 차이가 난다.

### Ⅲ. 《三國史節要》와 《東國通鑑》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편찬할 때 《삼국사기》는 물론이고, 《삼국유사》 또한 참조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그 인용서목에서 분명히 《삼국유사》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정복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삼국유사》는 아예 버리고, 《삼국사기》를 택하여 김유신의 홍무대왕 추봉시기를 홍덕왕대로 거론했는가? 나아가 안정복은 또 무엇을 근거로 《삼국사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구체적 추봉 시기로 홍덕왕 재위 10년 봄 2월을 거론했는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선왕조 건국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된 東國의 역사편찬 사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역성혁명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고려를 대신한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그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선 《고려사》 편찬을 준비하였다.

태조 이성계대에 추진된 《고려사》 편찬사업은 1454년 10월에 이르러 世家 46권 · 志 39권 · 年表 2권 · 列傳 50권 · 目錄 2권의 전139권으로 된 기전체의 《高麗史》를 인쇄, 반포했다. 그에 앞서 문종 2년(1452)에는 편년체인 《高麗史節要》(전 35권)를 완성한 바 있다.

이를 발판으로 조선왕조는 그 서술 대상 시 · 공간을 더욱 확대한 역

사편찬을 시도했으나, 그 대표적 산물로 편년체인 《三國史節要》와 《東國通鑑》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학계의 견해는 《삼국사절요》는 《동국통감》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돌출한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실제 그 내용이나 체제를 보면 이런 통설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가장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삼국사절요》가 정말로 《동국통감》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나온 ‘중간 부품’이라면 어차피 《동국통감》에서 모두 다룰 내용을 따로 떼어내 그것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삼국사절요》가 단순히 《동국통감》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것과는 또 다른 하나의 독자적인 사서라는 방증자료로써 바로 김유신에 대한 흥무대왕 추봉에 관한 기록을 들고자 한다. 이 지점에서 바로 안정복이 거론한 흥덕왕 재위 10년의 흥무대왕 추봉에 관한 뿌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먼저 《삼국사절요》는 권13 乙卯年(835) 신라 흥덕왕 10년·당 태화 9년조에서 이르기를 “봄 2월에 아찬 김균정을 상대등으로 삼으니, 시중 우징이 그 아버지 균정이 上臣이 됐으므로 해직을 청했다. 이에 대아찬 김명을 시중으로 삼았다”라고 하고는 효자 손순 열전을 기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흥무대왕 추봉에 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삼국사절요》 권14 癸未年(923) 신라 경명왕 7년·후백제 견훤 32년·고려 태조 6년·후량 용덕 3년조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여기에서 이르기를 “겨울 11월에 金庾信을 追封해 興武大王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前代 문헌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가지만 후보로 놓고 거론한다면 《삼국유사》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 하지

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삼국유사》에서는 흥무대왕 추봉시기를 경명왕대라고 막연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시기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국사절요》가 《삼국유사》를 참조했다고 하더라도 모종의 다른 기록을 참조했다는 일대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 ‘모종의 다른 기록’을 필자는 아직까지 추적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동국통감》에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동국통감》 권11 을묘년(835) 흥덕왕 10년·당 문종 태화 9년조에는 “봄 2월에 아찬 김균정을 상대등으로 삼으니, 시중 우정이 그 아버지 균정이 上臣이 됐으므로 해직을 청했다. 이에 대아찬 김명으로 시중을 삼았다”라는 기사와 효자 손순 열전 기록 사이에 “김유신을 추봉해 흥무대왕이라 했다”라는 기록을 삽입하고 있다. 적어도 《동국통감》에 의하면 이 해 봄 2월에 김유신은 흥무대왕에 추봉된 셈이다.

《동국통감》은 이 기사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론을 붙이고 있다.

臣 등이 살피건대 신하의 직분으로는 당연히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신이 신라에서 공이 크기는 하나 周公이 큰 공훈이 있다하여 成王이 魯나라 重祭를 지내게 해 준 것도 오히려 잘못된 일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추봉하여 왕으로 삼아서 임금과 신하의 명분을 문란하게 한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이는 예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편찬함에 있어 적어도 김유신에 대한 흥무대왕 추봉시기와 관련해서는 《동국통감》을 답습했음을 알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이 한 가지만으로도 불과 간행 시기가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이 단순히 ‘부산물 對 완성품’의 관계가 아님을 단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흥무대왕 추봉은 《삼국사절요》 편찬을 끝낸 다음 《동국통감》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바로 잡은’ 결과임을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불과 2

년 전에 나온 기록을 바꿀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흥무대왕 추봉시기에 대해서는 흥덕왕대를 지목한 《삼국사기》·《동국통감》·《동사강목》 계열과 경명왕대를 거론한 《삼국유사》·《삼국사절요》의 두 계통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각 문헌별 흥무대왕 추봉시기를 <표>로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문헌별 흥무대왕 추봉시기

문헌	흥무대왕 추봉 시기
삼국사기	흥덕왕대(826~836)
삼국유사	경명왕대(917~924)
삼국사절요	경명왕 7년(923)
동국통감	흥덕왕 10년(835)
동사강목	흥덕왕 10년(835)

#### IV. ‘가야계 혈통 핸디캡론’과 그 비판

종래 학계에서는 김유신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신라사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가 실로 막중하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하였다. 이런 선행연구 성과들에서 세세한 차이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획일적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거의 천편일률적인 해설 혹은 해석으로 일관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가야 혈통 핸디캡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핸디캡론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된다. 김유신은 선조가(금관)가야로서 그것이 ‘엄격한’ 고품제사회인 신라에서 ‘핸디캡’이 되었으며, 그 와중에 가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라 정통 ‘귀족’보다 더욱 분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조부 武力이나 庾信 자신이 주

로 軍事 분야에서 활약한 것도 이런 신분 상승 욕구에 의한 필연적 선택이었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유신이 그의 여동생을 김춘추와 혼인시키고자 했으나 그 과정이 순탄치 못했던 것 역시 신라 정통 眞骨이자 왕손인 김춘추에 비해 김유신의 가야계 혈통이 ‘핸디캡’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아가 이런 식의 해석은 김유신 후손들에게도 전가되어 마치 만능 열쇠와도 같이 통용되고 있으니, 김유신 후손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삼국유사》 미추왕·죽엽군조 설화를 이와 연동시켜 가야계의 축출로 연결하기도 한다. 더불어 김유신에 대한 흥무대왕 추봉 또한 滅門之禍에 버금가는 피해를 본 김유신 가문에 대한 ‘달래기’ 차원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식은 근거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김유신 조부인 武力이나, 아버지인 舒玄 단계에서 가야계 혈통이라는 점이 신라 사회에 着根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김유신 당대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적지 않은 억설과 논리비약을 동반하고 있다. 김유신과 김춘추가 처남 매부가 되는 과정만 해도 그 순탄치 못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그 까닭을 김유신이 가야계 혈통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설하는 것은 억설 중의 억설이다.

나아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이나 《삼국유사》 미추왕·죽엽군조 이야기가 전하는 김유신 손자 단계에서의 그 후손들에 대한 신라왕실(혹은 조정)의 배제 움직임이라든가, 혜공왕대 무렵으로 생각되는 그 후손에 대한 모종의 처단을 가야계 혈통이라는 점과 연결할 수 있는가? 설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런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아무 데도 없다. 아무리 그 국가와 왕실에 큰 공을 세운 功臣이라고 해도 그 후손이 처단되는 이유는 수십 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 곳곳에서 발견되거

니와, 그럼에도 그런 무수한 다른 가능성들은 모두 배격하고 오직 가야계 혈동이라는 점만으로 그 축출 원인을 수렴하는 것은 학문적인 태도와는 하등 거리가 멀다.

김유신에 대한 흥무대왕 추봉 또한 가야계 ‘달래기’라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김유신 가문의 득세가 그 가문의 중시조격인 김유신에 대한 大王 추봉을 가능케 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순리적이다. 가문이 이미 품비박산 났는데 그렇게 와해된 가문의 중시조를 사후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난데없이 대왕으로 추봉하는 힘을 이보다 더 그럴 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은 현재로서는 없다.

## V. 興武大王 추봉과 新金氏의 창출

대왕 추봉은 단순히 특정 개인에 대한 사후 평가로 그치지 않는다. 대왕 추봉에 따른 유·무형의 많은 특혜가 그 후손들에게 미치기 마련이다. 당장 신라왕만 해도 대왕 추봉 뒤에는 김유신을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 神主 앞에서는 臣을 칭해야 한다. 그리고 때마다 제사를 올려야 한다.

김유신 후손들 또한 흥무대왕 추봉을 계기로 멸망한 금관가야 왕족의 후손이 아니라, 신라대왕의 후손으로 그 위치가 급격하게 격상된다. 이는 그 스스로를 흥무대왕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보물 제363호)에서 우뚝하다. 경명왕 8년(924)에 건립된 이 비는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봉림산 鳳林寺址에 있었으나 지금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뜰로 옮겨져 있다.

비문에 의하면 문성왕 15년(853)에 출생한 眞鏡大師는 속성이 新金氏이며, 법호는 審希다. 경명왕 8년(923) 4월 24일에 70세로 입적한 그

의 가계를 언급하면서 그 선조[其先]는 신라에 투항한 任那王族(금관가야)이며 遠祖는 興武大王이라 한다.

비문 그 자체에 의하면 글은 진경대사의 門下僧인 行期가 奉敎書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본문 첫 문장은 “내가 듣건대[余聞]”로 시작하고 있다. 제자가 스승 앞에서 ‘나[余]’를 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의 지은이는 行期지만 실제 비문 撰者는 景明王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眞鏡大師의 원조를 당시 신라왕이 金庾信이 아니라 興武大王이라 칭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당시에 이미 金庾信이 대왕으로 추봉돼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경명왕도 감히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흥무대왕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라 하대에 접어들면서 그 후손들이 알지-미추-나물-태종무열왕-원성왕으로 크게 분기점을 찍을 수 있는 종래 정통 신라 김씨에 대해 가야계 김씨가 ‘新金氏’로 표점화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대목이다. 新金氏란 말할 것도 없이 舊金氏를 대칭으로 설정한 개념으로서, 舊金氏는 종래 정통 신라 김씨이다.

가야계 김씨의 新金氏 표방을 추동한 원인으로는 크게 外因論과 內因論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전자는 비자발적·강제적인 것으로 舊金氏에 의한 新金氏의 강제적·폭력적 배제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新金氏 자발적인 분리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를 더욱 부연하면 新金氏 스스로가 종래 같은 金氏로 뭉쳐져 있던 집단에서 떨어져 나와 分家를 결행했다는 뜻이 된다.

진경대사비문에서 또 하나 유의할 대목은 新金氏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양대 축으로써 첫째, 任那王族 후손이라는 점과 둘째, 興武大

王 후손이라는 점의 두 가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이 비문에 의한다면 新金氏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 시점에서 문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는 흥무대왕 추봉 시기 중에서도 경명왕 7년(923) 혹은 막연히 경명왕대를 거론하고 있는 《삼국유사》와 《삼국사절요》는 그 신빙성에서 탈락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삼국사절요》에서 말하는 흥무대왕 추봉시기인 경명왕 7년과 진경대사 遠祖가 興武大王이라고 기록되는 시점은 불과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흥무대왕 추봉 시기는 언제쯤인가? 이 지점에서 당연히 사료에서 확인되는 新金氏 등장 of 하한 시기를 주목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유의할 자료가 진경대사비문과 함께 皇龍寺 9층목탑 剎柱本記이다. 경문왕 12년(872)에 작성된 이 찰주본기에는 목탑 중건에 관여한 인명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新金氏가 보인다. 赤位 大奈麻인 新金賢雄과 靑位 奈麻인 新金平矜이 그들이다.

문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新金氏는 이처럼 신라시대 금석문을 볼 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에 의하는 한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황룡사 9층목탑 찰주본기가 작성되는 경문왕대 무렵에는 출현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종래 정통 신라 김씨에 대해 신라에 투항한 任那王族 계열 후손을 新金氏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추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을 추적하는 과정은 바로 앞에서 제기한 新金氏의 탄생 원인인 外因論과 內因論 중에서 어느 쪽인지를 판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론만을 간략화하면 필자는 新金氏 스스로 신김씨를 표방했다고 본다. 그것을 가능케 한 추동력은 김유신에 대한 興武大王 추봉이라고 봐야만 한다.

첫째, 어떤 혈통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이 그 집단이 속한 大 집단 속에서 그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집단들을 타자화하는 데는 그 동기 혹은 출발이 설혹 외인론에 있었다고 해도, 여기에는 자발적 움직임이 내포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하고 많은 타자 집단 중에서도 新金氏가 그 정체성을 창출하는 근거로 설정한 대상이 舊金氏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任那王族을 뿌리로 하고 김유신을 중시조로 삼는 혈족집단(물론 부계 중심일 것이다)은 주된 타깃으로 설정한 대상이 新金氏였다는 사실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은 이 혈족집단이 新金氏를 표방하는 시점에 舊金氏가 차지하는 위상에서 역으로 드러난다.

찰주본기가 완성되는 경명왕대만 해도 新金氏는 신라왕조 권력의 핵심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무렵 왕위는 舊金氏에 의해 독점됐으며, 이를 발판으로 권력 핵심부 중핵을 차지한 계층도 舊金氏였다. 新金氏는 신라사회를 구성한 다양한 (혈족) 집단 중에서도 이런 최강 집단을 겨냥해 그들과는 구별되는 정체성을 창출했다는 것은 新金氏에 맞설 만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 기반은 무엇인가? 신라왕위를 독점하는 舊金氏를 향해 “나는 新金氏다”라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힘은 말할 것도 없이 김유신이 제공했다고 보아야 한다. 단순히 김유신 후손이라는 점이 아니라, 그런 김유신이 어느 시점인가에 신하 혹은 三韓一統의 元勳大臣을 뛰어넘는 大王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유신에 대한 大王 추봉이 신라 하대 정치사에서 갖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유신이 大王에 추봉됨으로써 당시 왕위를 독점하는 舊金氏에 대해 김유신 혈족 집단은 “우리도 新羅大王의 후손이다”는 구호가 실질적인 뒷받침을 갖게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 흥무대왕 추봉 시기는 적어도 이 둘 중의 하나를 고른다면 당연히 《삼국사기》와 《동국통감》과 《동사강목》으로 연결되는 興德王代일 수밖에 없으며, 그 범위를 더욱 좁힌다면 《동국통감》과 《동사강목》에 의해 흥덕왕 10년(835)이 된다. 다만 그럼에도 경명왕대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뚜렷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하여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